



89세 호명 스님, 마지막원력 '인재불사'

"수행을 하려면 선(禪)의 길잡이가 되는 이론적 체계와 철학이 확고히 서야 불려움이 없는 선공부가 시작됩니다. 선로(禪路)에 오르는 방법론부터 직접적인 선 수행 지도와 점검으로 바른 선승을 배출하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평소 선 수행에서 선이론 정립의 중요

열매를 후학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다.

동안거, 하안거 없이 3년 동안 지속적 으로 공부에 임할 스님들을 모집중인 경 심회 선방은 어디서든지 선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을 정립시키기 위해 '종교로서 불교신행의 방법론' '불교 공(空)사상의 선철학' '선수행 실수(實修) 등의 과목이

서의 정진과 천성산 조계암에서 22년간 선종일지의 수행을 했던 호명 노스님은 선방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법문비를 모으고,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선승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심회 회원을 모집해왔다.

호명 노스님의 원력과 열정에 탄복해 운흥사에 선방을 열게 된 선원장 아은 스님은 "호명 노스님의 원력은 젊은 우리들도 흉내조차 낼 수 없다"며 "다양한 수행 법이 혼재하는 현실에서 올바른 선수행의 길잡이가 되는 어른 스님을 모시고 수행하고 탁발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 양성을 부처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여기는 호명 노스님은 "우리 불교의 뿌리를 튼튼히 하려면 모든 이의 모범이 되는 스님의 자세가 옮겨야 하고 선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참된 수행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입학 문의 055) 382-3225 부산=천미희 기자

운흥사에 선방 '경심회' 열고 후학들 지도 10명 선발 입학...동·하안거 없이 3년 정진 불교신행방법론·선수행 실수 등 가르쳐

성을 역설해온 세수 89세의 통도사 호명 노스님(사진)이 신라고찰 울산 운흥사주 지 아은에 '경심회(經心會)'라는 선방을 열고 직접 선 지도에 나선다. 선원장이나 조사를 마다하고 지도법사를 맡은 이유도 노스님의 마지막 원력이자 60여년 수행의

개설된다. 경심회 선방은 향후 2개월 동안 수시로 입학 신청을 받고, 호명 노스님이 직접 점검 후 선발한 스님 10명만 우선 입학을 허용하고 공부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강산 마하연, 상원사 등 제방선원에

6월5일 '환경의 날' 이모저모

노 대통령 새만금 강행의사

○...환경의 날인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 강행 의사를 밝혀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특강과 오찬간담회에서 "지금 큰 영점은 사업을 하는데 농지나 관공지나 산 입단지나 아니면 전북도민이 더 좋아할 또 다른 용도로 쓰게 하느냐"라고 말해 사실상 사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새만금 특위 인선 가닥

○...새만금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민간위원장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28명의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새만금사업 특위는 노 대통령이 5월 20일 '신구상기화단' 구성을 지시함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2004년 까지 여론수렴 작업 등을 거쳐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새만금 간척 중단 촉구

○...5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

대는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노무현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삼보일배에 참여했던 문규현 신부의 형인 문정현 신부가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과 전북공무원의 집단행동에 항의하며 5일부터 전북도청앞에서 침묵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환경운동연합, 백지논평

○...환경운동연합은 5일 백지논평을 냈다. 논평문에서 "세계 환경의 날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백지논평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의 묵언은 노무현 정부를 가장 환경과괴적 정부로 역사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만금 살리기 전세계 확산

○...삼보일배가 인터넷으로 세계에 알려지자 미국, 일본, 호주 등 전세계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5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구 의 몇 국제본부, 시에라 클럽, 일본 습지보전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들이 청와대로 항의 메일을 1500여통을 이미 보냈고 지금도 항의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산사 여름휴가 어떠세요?

통도사·해인사등 수련회 참가자 모집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등 주요 사찰들이 7월부터 열리는 여름 수련회 참가자 접수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여름수련회를 개최하는 해인사는 '아름다운 인연은 가장 가까이 있다'를 주제로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7회에 걸쳐 930명을 모집한다. 화엄사는 '잠 나들 찾아서'를 주제로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서울 길상사와 공주 마곡사, 장성 백양사도 참선수련회를 통해 참가자

들의 정신세계를 일깨운다. 한문화당으로 유명한 해남 미황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과정으로 각각 2회씩 문을 연다. 나주 불회사는 '순간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롯이 집중하라'라는 주제로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5회에 걸쳐 관음대참회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밖에 영천 은해사, 해남 대흥사, 평창 월정사 등에서도 여름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골굴사	초·중·고생	7.1~8.31	(054)745-0246	www.sunmudo.com
길상사	초고생	8.12~14	(02)3672-5945-6	
	중고생	7.24~27		www.kilsangsa.or.kr
	일반	7.31~8.10(2회)		
마곡사	어린이	8.1~4	(041)841-6221	
	일반	7.10~8.9(4회)		
	성당교사	8.11~16		
미황사	초고생	7.27~8.14(2회)	(061)533-3521	www.mihwangsas.com
	중학생	7.27~8.14(2회)		www.baekyangsa.org
백양사	일반	7.21~8.15(4회)	(061)392-0434	www.baekyangsa.org
불회사	일반	7.19~8.20(5회)	(061)337-3440	www.bulhoesa.org
서원사	일반	7.16~8.22(6회)	(055)291-6405	www.seowonsa.org
송광사	일반	7.13~8.7(4회)	(061)755-0107-9	
	중·고생	8.10~13		www.songgwangsas.org
통도사	일반	7.13~31(4회)	(055)384-8380	www.tongdosa.or.kr
	중고생	8.2~5		
	초고생	8.7~9		
해인사	일반	7.1~8.16(6회)	(055)931-1390	www.haain-sa.org
	중고생	7.29~31		
화엄사	일반	7.22~8.15(4회)	(061)782-7600	www.hwaomsa.org

"석탑현물시주 뇌물아니다"

오 국방차관보, 불기협과 간담회

"석탑 현물 시주는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치훈 국방부 차관보는 3일 국방부에서 한국불교기자 협회(회장 김원우, 이하 불기협) 소속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건임을 전제하고 김태복 장관 견과 관련 '석탑 현물 시주는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 하자 "그 말이 맞다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나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재조사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장해 법무관차관보도 "작년 3월 최 모 소령(사건 당시 건축물 심의 담당 장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으나 보



◇오치훈 국방부 차관보(사진 우측 첫번째)가 기자들에게 김태복장군 사건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스님을, 추진위원장에 분 각 스님(중 앙승가대 교수), 연구위원장에 해주 스님(동국대 교수)을 각각 임명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은 "8회 대회는 승승가가 함께하는 명실상부 한 세계대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내년 6월 세계여성불자대회

교육과 수행 주제, 서울·경주서 10일간

2004년 6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8회 세계여성불자대회(이하 사키 아이다)의 주제와 일정이 확정됐다. 5일 서울 하림각에서 발족식을 가진 '사키아이다 추진위원회'는 대회 주제를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현재와 과거'로 정하고 내년 6월 27일부터 10일간 진행될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는 6일간의 본행사와 3박4일간의 성지순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명예총재에 위촉하고 공동대회장에는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과 사키아이다 회장 혜공(타베트 법명 Kama Leshe Tsomo) 여수행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인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묵락소리 산으로 가는 '동국대' 호

김원우 (취재1부 차장)

시비와 우려가 일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구체적으로 불교병원 이권과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스님이사 5인의 자리와 모종의 관련이 있는 전조전으로 동국대를 흔들고 있다는 추측들도 난무하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다. 정대 이사장과 홍기삼 총장이 임기를 시작해 100일을 막 지낸 시점에서 재단과 학교가 자칫 내용에 휩쓸릴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2006년 개교 100주년, 일산 불교병원 개원을 앞두고 중단과 학교 학내구성원 불자들이 합심해 여러 상황에서 사공 많은 동국대호가 바다로 가지 못 하고 산으로 가고 있다.

부처님 기쁘기 증민인 우리절

이라크 전쟁과 사스·알제리 지진 희생 영가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위로를.....

- ▶ 지난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 ▶ 지금도 SARS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 ▶ 최근에는 알제리 지진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의 의거 불우한 영가를 전도합니다.
- ▶ 모두 오셔서 유행을 달리아신 국제영가님들에게 짜 한잔씩 올립니다.
- ▶ 행사안내
 - 일 시 : 2003년 6월22일 일요일 오전10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 큰법당
 - 법공양 : <일원곡> 제5권 (동봉스님의 40번째 책)
 - 후 원 : 동선회, 계운행복, 목련사랑, 신도회
 - 결집일 : 동봉스님 출판기념회

※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는 동봉스님의 <일원곡> 제5권과 목련사랑에서 보시한 배건을 나누어 드립니다.

장소: 곤지암 우리절
www.urijeol.com
우리절.net
Tel: (031)763-4674~5